

예 배 WORSHIP

September 22,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책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14:6-15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구 민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가서 제지 삼으라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40:17-28
온전한 순종

오늘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곡은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단기선교를 준비할 때에도 많이 불리는 곡이다. 곡의 배경은 갈렙이 여호수아 14 장 12 절에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사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하고, 롯이 소동과 고모라를 택한 후 주어진(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간 곳이었다.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고 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살았다.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단지 믿음이 좋거나 희생정신이 강해서 다른 지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요구의 근거가 ‘약소대로,’ ‘말씀대로’ 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 캄보디아 이상호 선교사의 글에서 -

찬 주간의 기도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손의 계산서를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내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내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찬양가 8장 10절

삶과 신앙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1. 끝을 아는 마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여행을 다니며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 느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천국은 다시 군대에 간 것처럼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기르는 곳이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나는 40 대에 셋째가 생겨서 자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삶은 달라졌다.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계신 곳,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끝을 맞이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전 7:2).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준비 없이 끝을 맞이한다. 생명을 알고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모른 채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2. 분별의 기준

은혜를 받고 욕심을 이루는 데 그 마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은혜를 사용하려는 마음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의 기준은 ‘기분 좋음’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좋’이 되어 살고 있는가에 있다. 지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허탈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좋은 기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있고자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좋으신 분이시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훈련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즐기라는 말을 조심하며 분별해야 한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평제들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갈 5:13).

3. 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쉬게 하신다.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마 11:28-30). 우리가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 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삶을 수고스럽고 무겁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마음은 삶을 고통과 무거움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다. 어떤 마음이나 삶도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그분께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분의 마음을 많이 받고 누리게 된다. 그때도 내 것으로 은혜를 만들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노릇 할 수 있다면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아무 일도 없어야 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면 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종노릇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쉬지 못한다. - 김길 목사 『제자도』 중에서 요약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은 기도의 달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총명한 능력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주일 성경공부가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 인물 탐구: 고순제 전도사
3.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4.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한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6. Power Prayer 2019 기쁘고 힘 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서약한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 9월의 사역일정 - 9/22-28 선교주간 9/29 선교주일

◆ 교우동정 - 김신실 집사 / 한국 가족방문

♥ 생일 축하 ♥ 이정운 (30)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9/15	9/22	9/29	10/6
주일에배기도	최내권집사	정홍렬목사	최선운집사	고순제전도사
금요일배기도	9/20	9/27	10/4	10/11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9/15	9/22	9/29	10/6
	구민집사/유동숙집사	김훈태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얻지 못한 땅도 기업으로 약속되다!** / 여호수아 13:1-7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전면적인 정복전쟁을 멈추고, 미정복지까지 포함해 기업으로 나누었다. 미안심으로 중단된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였다. 즉, 지친 이스라엘의 휴식, 더 넓은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 얻어진 것을 믿음으로 마무리할 기회, 끝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최고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지도, 마주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멋있게 통과하지 못 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맡겨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완수하며, 테스트를 통과하며 성장해야 한다. 당장 정복해야 할 숙제나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통해 멋지게 감당하며 승리하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여호수아 14:6-15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사람의 판단인가.

45 년이 지난 후 갈렙의 모습은?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한 땅은?

갈렙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할 헤브론 산지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삶.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여호수아 14:6-15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눌 때, 갈렙은 자신에게 먼저 헤브론 산지를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45 년 전에 갈렙은 열두 명의 정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 세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정탐하였던 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가나안의 넓은 땅 가운데서 하필이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에게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45 년 전에 열 명의 정탐꾼들이 용기를 잃게 된 것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과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5 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도 헤브론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정복하기 힘든 산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45 년 전에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믿음에 책임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 크고 견고한 요새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직접 정복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정복이라는 어려운 사명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지금 행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진 헤브론 산지를 마침내 정복하고 맙니다. 이로써 갈렙은 자신이 45 년 전에 고백한 믿음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헤브론 산지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섬기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자정하여 손해 보며 양보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일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헤브론 산지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믿음의 성도로 말만 앞서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의 과정이 힘들지라도 갈렙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로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September 22,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기도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세상오만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를 나는 만네